

## 한국산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농수산물 현황

### □ 일본 오사카

상품명	단가	주요 특징 등	사진
키위	약78엔~/개	1.일본 생산량('14년) : 32천톤 2.수입산('15년) : [1위] 뉴질랜드 78,647톤(97.2%) [2위] 칠레 1,835톤(2.3%) [3위] 미국 342톤(0.4%) [4위] 한국 59톤(0.08%) 3.사유 : 한국산은 뉴질랜드산 키위의 단경기(11~2월)에 수입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규모화로 단가를 낮추면 일본산과 경쟁이 가능	
토마토	약105엔~/개	1.일본 생산량('14년) : 740천톤 2.수입산('15년) : [1위] 한국 3,699톤(52.6%) [2위] 미국 1,431톤(20.3%) [3위] 뉴질랜드 1,131톤(16.1%) 3.사유 : 일본산은 대부분 생식용이며, 미국산 토마토 수입 감소('13 대비 67%↓)에 따라 대과토마토의 가공용 수요 공략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 * 단, 잔류농약 관리 철저 및 ID제도 적극 활용 필요	
멜론	약 972엔~/개 ※고가상품 약 23천엔/개	1.일본 생산량('14년) : 168천톤 2.수입산('15년) : [1위] 멕시코 24,712톤(75.5%) [2위] 미국 7,320톤(22.4%) [3위] 한국 653톤(1.2%) 3.사유 : 참외로 대체. 오래전 일본에서는 고가인 메론 대비 저가이자 머스크 메론과 맛이 비슷한 일본산 참외 '마쿠와우리'가 많이 유통되었음. 1960년대 이후 여러 종류의 멜론이 유통되자 생산자가 줄었으나 최근 유통업체 판촉결과, 향수 등의 이유로 참외에 대한 호평으로 시장 진출 가능성 높음	

상품명	단가	주요 특징 등	사진
들기름	일본산 1,455엔 한국산 1,192엔 중국산 876엔 *180ml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규모: 약 53억불 추정(한국산 12억불(23%))</li> <li>2. 판매현황 : 일본산 51%, 중국산 26%, 한국산 23%</li> <li>3. 사유 : '15년 들기름의 식물성 오메가3 성분 함유에 대한 언론보도에 의한 붐으로 한국산 '15년 대일수출은 전년대비 10,662% 급성장. '15.4월 기능성 표시식품제도 시행 등으로 향후 들기름 시장확대가 예상되나 일본 제조업체에서 먹기 좋고 휴대가 간편한 신제품 출시 등 제품이 다양화 되고 있어 한국산 들기름도 기존 포장(병타입)에서 소포장 등 개선을 도모한다면 시장 확대 가능할 것</li> </ol>	 <p>소포장(캡슐타입)</p>
김치	프리미엄김치6 46엔/350g 한국산 376엔/330g 일본산김치 354엔/320g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규모: '14년 705억엔(판매량 231,800톤) 한국산 대일수출 57백만불(8.5%)=약 60억엔)</li> <li>2. 수입현황('15년) : 한국 14,819톤/44.5백만불</li> <li>3. 사유 : 일본의 김치시장은 한국풍 곁절이식 김치가 주류(약 85%)이지만, 최근 일본의 프리미엄 시장확대로 인해 한국산 전통발효김치와 건강저염식 김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 제품 대비 고가(약 1.5~2배)이나 틈새시장 공략 가능할 것</li> </ol>	-
인삼제품	인삼제품 7,560엔/90정 로얄제리 7,344엔/100정 프로폴리스 8,218엔/100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규모 : 인삼시장 약 100억엔(건강식품 시장규모 7,113억엔)</li> <li>2. 일본생산량 : 90톤</li> <li>3. 수입현황(신선, 건조, 분말 및 음료원료) - [1위] 중국 330톤 / [2위] 한국 69 / [3위] 미국 61 * '15년 한국산 수출 32백만불</li> <li>4. 사유 : 일본 내 한국산 인삼은 건강식품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최근 건강식품업계 호조로 면역력 개선제품(535억엔 규모)으로 인기 있는 로얄제리나 프로폴리스 등과 같은 제품의 대체가 가능할 것</li> </ol>	-

상품명	단가	주요 특징 등	사진
고추류	<p>당조고추 198엔/100g</p> <p>풋고추 100~150엔/100g</p> <p>기능성 피망 198엔/100g</p>	<p>1. 시장규모 : 일본 고추류(피망 포함) 소비 18.4만톤 (12년 기준, 생산 15만톤 / 수입 3.4만톤)</p> <p>2. 생산량 : 149천톤(피망류 137천톤, 파리고추 8, 파프리카 4, 매운 건고추 3백톤)</p> <p>3. 사유 : 일본 고추류 시장은 수입산을 포함하여 연간 18.4만톤 소비되고 있음. 최근 건강관심으로 인해 ‘고혈압과 피로회복, 동맥경화’에 대한 효과를 내세운 기능성 피망이 1.5배 고가판매로 판매가 되는 등 기능성 고추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산 당조고추가 일본산 고추류 대비 다소 고가이기는 하나 기능성과 맵지 않는 맛, 크기 및 색상 등을 어필한다면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음</p> <p>* 일본에서는 오이고추와 같은 제품이 없으며 풋고추 형태만 유통되고 있음</p> <p>* 당조고추 기능성 : 식후 혈당치 급상승 억제</p>	 <p>당조고추(포장판매)</p>